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6월 18일 (제1206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Simple is the best!

세계 최고의 요리를 꼽으라면 아마도 프랑스 요리일 것이다. 나는 가끔 프랑스 요리를 대하곤 하는데, 정말 커다란 접시에 음식이 아주 조금, 심플하게 나온다. 그게 일단 눈을 때료시킨다. 물론 맛도 기가 막하다.

일류 멋쟁이들의 공통점은 옷을 굉장히 단순하게 입는다는 것이다. 색도, 디자인도 지나치리만큼 단순하다. 거기에 정갈한 액세서리 하나 추가할 뿐인데도, 그게 그렇게 세련될 수가 없다.

Simple is the best! 간단한 것이 최고다. 그래서 그럴까. 요즘 우리 생활에서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유행이다.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생활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 집안을, 우리 장롱을, 우리 신발장을 들여다보면 물건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렇게 쟁여놓고도 계절이 바뀌면 또 산다. 매일 입을 게 없고, 신을 게 없단다. 그래서 집이 좁은 거고, 정신이 없는 거다. 명품의 삶은 단순함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

말이나 글도 단순해야 의미가 잘 전달된다. 온갖 미사여구, 형용사를 나열해놓으면 진짜 의미가 상실된다. 단순해야 명쾌하고 힘이 있다. 물줄기가 하나일 때 힘이 있고 멀리 가는 것처럼, 가지를 쳐줘야 크고 실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분법, ‘해라, 하지 마라’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에 팔복(八福)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심플하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의 것이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군더더기가 없다. 고민하며 헤쳐볼 필요도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가 전부다. 왜? 진리는 단순하니까. 피부가 좋으면 굳이 두꺼운 화장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단순함이 최고요, 간소함이 명품인생을 만든다. 복잡하고 과한 것들을 지양하고 심플한 삶을 살자! 또한 심플한 하나님 말씀을 심플하게 실천해보자.

Simple is the best!

충성된 자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아서, 하고 싶어’ 하는 일보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더 많다. 바로 그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로 인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정된다. 그 일에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히, 책임 있게 임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성공과 직결된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성공하려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충성의 한자를 보면, 충성 충(忠)과 정성 성(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20:24) 하였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습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다한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 모든 신약인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르는 법입니다. 좋고 실한 씨앗을 골라 옥토에 심어야 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멀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이요, 이런 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증하고 써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흔들어보십니다. ‘이래도 하겠느냐’, ‘이래도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마치 엘리야가 ‘가라, 가라’ 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내가 해외집회에서 실업인 세미나를 진행할 때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 씨앗을 골라서 쓴다

봉우 이초석 목사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자를 쓰라

서 충성 충(忠)은 가운데 중(中)과 마음 심(心)이요, 정성 성(誠)은 말씀 언(言)과 이를 성(成)이 조합된 말입니다. 곧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받아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명령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충실히 수행하여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충성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전하,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며 풍전등화의 국가 위기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명량 앞바다로 나가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는 생즉사 사즉생(生即死 死即生)의 각오로 국가를 지켜낸 충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충성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문벌이다, 학력이다, 외모다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과가 작더라도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 어떠한 일을 맡겨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일컬어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모세를 쓰신 것 같이 여호수아, 갈렙을 쓰셨고, 다윗을 쓰셨습니다. 사람을 골라 쓰신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더럽힙니다. 사람 하나 잘못 쓰면 국가가, 기업이, 단체가 온통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는

업에 무능한 자가 승진하면 그가 승진하는 만큼 그 기업은 속히 망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를 쓰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쓰시는 것은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오늘에 이른 것은 내가 충성된 자를 골라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라는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저요!’라고 외칩니다.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버릴 각오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쓰세요. 충성된 자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렘6:10~21)



작품은 작가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잠깐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에게 “고령자이십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말에 ‘맞다. 내가 고령자구나.’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무엇을 못하겠습디다. 무엇을 하려다가도 ‘나는 고령자인데... 주의해야지.’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아직도 청춘이다. 나이야, 가라~’ 했더니, 다시 의욕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생각이란 것이 참 무섭습디다.

도토리 안에는 참나무가 들어있다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하와의 입을 벌려 강제로 선악과를 먹였습니까? 아니요. 그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라는 생각만 주입했습니다. 생각만 넣었을 뿐인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는 생각만 넣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요13:2). 그 생각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그를 건지고자 계속 던지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은 삼십 냥에 판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파괴력입니다.

제가 요즘 틈틈이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작품은 내 생각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산을 스케치하고 녹색 계열 대신에 파란색을 칠해볼까 생각하고 칠하니 파란 산이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만드는, 내 생각대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행복을 스케치하면 행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성공을 그리면 성공이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불행을 생각하는데 행복이 올 리 없고, 실패만 그리는데 성공이란 작품이 탄생할 리 없습니다. 사과를 그리면서 ‘바다가 되라’ 한다고 바다가 됩니까? 애초에 바다를 그려야죠. 까만색을 칠하면서 ‘붉어져라’ 한다고 붉어집니까? 애당초 붉은색으로 칠해야죠. 애초에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법이니까요.

누군가 그럽디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요. 이 말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그 생각대로 나는 존재한다.”, 이진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생각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그것이 온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한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뭐가 잘 안됩니까? 자꾸 뭔가 꼬입니까? 아프고, 망하고 힘들습니까? 과거에 당신이 한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내일의 나는 오늘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니까 지금부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선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당신의 미래는 멋지고 아름답고 실행하고 보기에 좋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 작가도 단번에 작품을 완성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지 못합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른 캔버스에 갈아타고, 부수기도 하고, 덧칠을 해서 명작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못 그린 것들, 잘못 만든 것들을 지우고, 부수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당신은 복이 있는 자요, 당신의 장래는 밝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막5:28)는 생각이 있었기에 마음을 받았고,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지분을 팔아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발하게 되었으며(막2), 고아인 에스더가 사촌오빠로 인해 생각을 바꿔 풍전등화의 이스라엘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술가요, 작가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은 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밤과 낮, 사계절, 산과 바다... 오묘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기 그지없는 이 작품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 생각의 주머니에서 말이 나온 것이고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법,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DNA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왜 굳이 그 힘을 부정적인 쪽으로 쓰십니까? 인생은 일생(一生)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걸작, 대작, 명작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학벌이나 돈이나 인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거미줄을 얹어려면 거미줄만 거둬내서 될 일 아

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제가 물 없는 사막의 길을, 눈 덮인 산야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초긍정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제 생각만은 흔들지 못했습니다. 꼭 품고 지켰거든요. 그래서 세계교구를 실행하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대로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내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다보아야 합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자신의 생각을 천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네 친척 중 엘리사벳이 있지? 그도 늙었는데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졌단다. 누가 하겠는지 아니? 바로 하나님이지. 너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단다.”(눅1:35~37)라고 생각을 바꾸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안 된다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라고 생각을 바꾸어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다. 근원 거미를 잡아야죠. 나무가 죽어가면 가지를 쳐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살려야죠. 우리 인생에 거미줄이 널려있고, 인생의 나무가 죽어간다면, 열매가 없고, 푸르지 못하다면 근원을 살려야 합니다. 생각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썩은 생각, 악한 생각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을 뿐이니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맞습니다. 마음,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지켜주는 자가 있지만, 내 생각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마귀란 놈은 틈만 나면 가라지를 뿌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는 유독 잘 자랍니다.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부정적인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 스며들고,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늘 철통같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거든,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십시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눅18:27).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사55:8~9).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렘4:13)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무채색의 삶이 화려한 것으로 변화되어 인생의 작품이 멋져지고 명작이 됩니다. 멋진 삶을 원하십니까? 멋진 생각을 하십시오. 누리고 나눠주며 살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한 자신을 늘 상상하십시오.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왜냐? 생각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렘6:19). 지금 당신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 생각이 당신 인생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배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들어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아내와 자녀에게 눈치가 보여 괜히 밖으로 빙빙 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늙기가 서러우면 내려놓은 짐을 다시 짊어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아는 것이 없으니 일거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권세가 있고 어디에 가더라도 대접을 받게 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사람처럼 일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고, 늙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의욕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배우지도 않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소중한 물질을 탕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존심을 버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들었다가는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배우고 익혀 그 분야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밭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19:2~3).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배우지 않고 그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국가에는 다른 분야로 이직을 준비하는 자들이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근로자와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 중인 중장년들, 새로운 경력을 다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필요한 역량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이거나 또는 현직 공무원이나 교직원, 그리고 연 매출 1억 5천 이상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늙은이 코스프레하지 말고 배달 앱을 깔아서 음식도 시켜먹고,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 기계 앞에서도 당당하게 카드로 결제하는 일부터 배워야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 어디에 가더라도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신앙논객 ::

호리천리(毫釐千里)

호리천리(毫釐千里)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티끌 하나의 차이가 후에는 천 리만큼의 엄청난 격차로 벌어진다는 뜻이다. 도화지에 연필로 자 없이 직선을 그어봤는가? 짧은 직선은 제법 반듯하게 그릴 수 있지만, 조금 긴 직선을 그리려면 쉽지 않다. 펜을 잡은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각도 차이, 방향 차이가 직선 궤도를 이탈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 버림받은 자들, 타락하고 변질된 인물 중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거나 평행선을 탄 경우는 거의 없다. 지극히 작은 것,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환희가 재앙으로 바뀐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동산의 수많은 나무 실과 중 하나였을 뿐이고,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 단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을 뿐이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려 한다는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명분이 있었고, 야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아예 안 드린 게 아니라 다만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을 뿐이다.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인류의 새 시대를 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됨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로 기록되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전쟁 중에도 묻고 또 물었으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총회장 목사님을 들어 쓰시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자성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初志一貫), 항구여일(恒久如一)하게 100% 순종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목사가 돼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늘 한결같은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목사님의 자세를 본받아 티끌만큼의 빠풀어짐이나 기울어짐 없이 바른길, 옳은 길을 따르는 신앙의 일직선을 그리길 소원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빨리 가려 말고 바른길을 가라

지난 6월 10일, 서울 예수중심교회 청년부에서는 이시대 목사님을 모시고 일일 부흥회를 진행했다. 이날에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대거 모여들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목사님께서는 “빨리 가려 말고 바른길을 가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곳,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

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 하늘나라에 살고 싶으면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고 이 법을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

목사님은 젊은이들이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된 삶을 살라고 강조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회개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하며, 진흥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당장 갖고 나오라고 하셨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이 우리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고, 우리를 힘써 기르신 총회장 목사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송현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 소망의 언덕 ::

가치 있는 삶

얼마 전 저는 사랑하는 제자 원복이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스무 살 청년의 장례식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내는 부모도, 일가친지들도 모두 슬픔에 젖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임종예배에서 이시대 목사님은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으며, 그 수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왜 원복이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하는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매일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주어진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복이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갔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대학 친구들과 작별 인사에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원복이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자신이 포기할 수 없다며 수면제를 거부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며 마지막까지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복이가 마지막에 회개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탄생 각해서 죄송해요~!”였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고백을 보며, 짧지만 ‘참 가치 있고, 순수한 삶을 살았구나! 참 멋있는 삶을 살다 가는구나~!’ 하는 마음과 ‘나도 저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주 앞에 갈 때 나도 저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물려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싸움을 한 우리 원복이가 천국에서 나를 보고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종이 되고 싶습니다.

“원복아! 지금도 보고 있지? 곧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 살다 갈게. 함께 일해줘서 고맙다.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해.”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 생각해보니 감사로 눈물만 흐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셨구나’ 느껴집니다. 37년 전, 학교 선배가 금요일예배에 가면 연예인처럼 잘 생기고 멋진 분이 찬양도 하고 피아노 친다며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근철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난 어느 날, 선배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다니지 않기로 했으니 저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가 알고 보니 이단이라며...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뜨거웠고, 우리 이초석 목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짧은 시간에 알았기에, 저는 울먹이면서 “괜찮아. 내가 만났고 보았으니 난 그대로 다닐 거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니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선배를 통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중에서도 내 가족의 구원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안 믿는 우리 가족을 어쩌나,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다 지옥 가는 거네.’라는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 하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족,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했고, 예배 도중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를 부를 때면 간절하게 ‘우리 가족도 구원 받아 즐거운 우리 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지방에 떨어져 살았기에 1년에 고작 세 번 정도 만났고, 더욱이 만나는 날이 명절이라 제사를 지내고 있기에 가족 구원은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더욱이 제 성격이 워낙 말이 없고 소

심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오후하고도 같은 밥상에서 밥을 못 먹을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이 ‘네 목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동생들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학교를 다니게 하자. 그리고 전도하자.’ 생각하고는 엄마를 설득해서 동생들 둘을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악한 영들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악한 것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글을 쓰다 보니 그때 순간이 떠올라 순간 마음이 떨리네요. 막냇동생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무 때나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귀신인 줄 알았지만, 집에서 동생을 데려가더니 미치게 만들었다고, 혼자 미치기 동생까지 미치게 했다고 핏박했고, 원흉인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이초석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지쳐가던 어느 날, 저 모르게 엄마하고 언니가 막냇동생을 시골로 데리고 가서 산중 절에서 굿을 하려고 늪에 놓았습니다. 제 동생은 그때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있어서 의지가 없이 그 절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도망쳐야 해.’하는 심령의 외침이 들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산속을 헤매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엄마와 언니는 너무 놀라 동생을 찾으려고 산속을 헤매다 잃어버렸다는 심정으로 산을 내려왔는데 길가에 동생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언니는 그 당시 너무 놀랐기에 ‘다시는 너 하는 일에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오후 또한 동생이 한쪽 다리를 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돌아가신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영적 존재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해서 이 일을 계기로 제사를 폐하고 동생 건강을 위해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네 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막냇동생은 전혀 아빠에 대해 모르는데 아빠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오후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지금도 막냇동생은 그 당시 3년이란 세월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신하고 싸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메인스타디움집회 때 또 역사하셨습니다. 엄마가 간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께 배운 것은, ‘내

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회를 위해 기도했고, 그 당시 성가대와 울동팀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회가 끝나고 오후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간이 깨끗해졌다며 의사마저 ‘오진이었나?’ 했습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불어도 태풍의 눈 속에 있으면 편안한 것처럼 세상의 역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정말 큰 산을 넘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힘이나 능력으로 넘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궁금했는데, 그 마음조차 헤아리신 하나님!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안수받으러 갔는데 그때마다 친필처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빠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용기를 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총회장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로 엄마를 천국으로 인도했고, 아꼈던 막냇동생은 마포교구 전도사로 사역하고, 둘째 동생은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생도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묵묵히 곁에서 기도해주며 믿어준 친구,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기도 동역자, 사랑하는 친구, 인생의 위기 때 안방을 내주면서 집처럼 편안하게 있으라며 싫다는 저를 설득하고 제 마음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준 친구 부부...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기도와 사랑을 이제 나눠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을지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꼭 박혀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정리할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강남교구를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분에 넘친 선물입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나눠줄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37년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시켜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강남교구 김유경 전도사

인간 본연의 부르짖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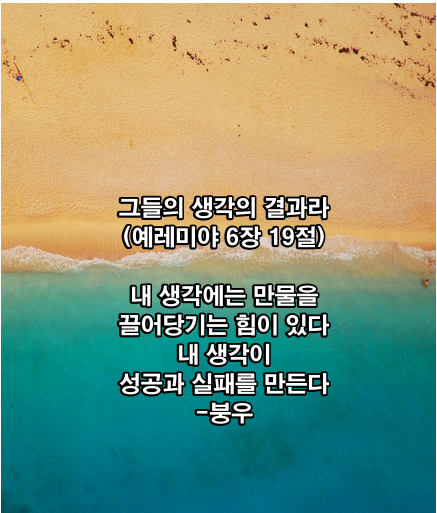
평생을 사찰에서 목탁 치던 스님도 얼음 위로 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져 죽을 지경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는 말이 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앎다가 목숨이 경각(頃刻)에 다다라 위급할 때면 그가 섬기던 석가모니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부르짖음이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쓸데없는 소리다.’하던 사람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지은 농작물이 침수되어 녹아버리고, 수마로 가옥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어 떠나려가고, 사람도 익사를 당하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하나님께 탄을 돌린다. 또한 가뭄이 들어 기근으로 산짐승, 들짐승이 마실 물이 없어 쓰러지며, 사람도 마실 물을 얻기 위해 저수지 밑바닥을 파다 기진맥진하여 결국 하는 말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다 죽어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왜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릴까? 왜 사람들은 기근이 오면 하나님을 무심하다며 원망할까? 왜 목탁 치던 스님이 다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까? 이것은 인간 본연의 부르짖음이다. 자기 인격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자기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신음소리다. 죽음 앞에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면, ‘천국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 서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 화를 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영혼의 감정이다.

그렇다. 지옥에 가기 싫은 것은 인간 본연의 몸부림이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면 천국이 없다고 하면서 지옥에는 가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몸부림이다. 성경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마22:23). 사두개인들은 부자로 살면서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던 자들이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비아냥거렸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승호 목사



그들의 생각의 결과
(예레미야 6장 19절)

내 생각에는 만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내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만든다
-봉우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